

## 성인학습자의 인문학 평생교육 학습체험에 대한 현상학적 질적연구\*

권향원(성균관대 겸임교수)†

김선이(성균관대 박사과정)‡

---

### 요약

본 연구는 성인학습자의 인문학 평생교육 학습체험의 본질구조와 내용을 현상학 체험연구 방법론을 통해 학습당사자의 관점으로부터 조망하였다. 이는 국가주도의 '위로부터 내려온' 성격을 지닌 인문학 평생교육이 학습당사자의 구체적인 고민지점과 의미요소들을 섬세하게 담지 못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리고 학습당사자에게 보다 와 닿는 인문학 평생교육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학습체험이 이들의 의식 속에 어떠한 '현상'으로 비추어지는지를 이해해야 한다는 현상학의 이념에 정초를 두었다. 이에 연구자들은 약 11개월간의 참여관찰 및 연구참여자 23인과의 심층면담을 통해 수집된 질적자료를 바탕으로 Colaizzi(1978)가 제시한 유형의 현상학적 분석방법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연구참여자의 학습체험은 '언움', '비움', '나눔'의 세 가지 본질구조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구체적으로는 1) '언움'의 본질구조에서 '객관화(관점전환)', '지평확장 및 통찰', '탈출구', '활용 및 목표'를 나타내었고, 2) '비움'의 본질구조에서는 '욕심', '정화', '부정성'으로 나타났으며, 3) '나눔'의 본질구조에서는 '공감 및 교감', '소통', '참여 및 실천'의 주제 클러스터(theme cluster)를 나타내었다.

---

주제어: 성인학습자, 인문학, 평생교육, 현상학, 질적연구

### I. 문제제기

한국은 '인문학 열풍'의 맹위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열풍의 바탕에 대하여 다음의 몇 가지 견해들을 검토할 수 있겠다. (i) 첫째, 인문학의 탐구과제인 인간됨(humanity)에 초점을

---

\* 이 연구는 2013년 정부(교육부)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3S1A3A2055108)

† 주저자: 권향원(0306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성균관대학교, 99blackmonday@hanmail.net)

‡ 교신저자: 김선이(0258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4길 22 동대문도서관, tjSDL71@sen.go.kr)

두고 있는 견해에 따르면, 한국 사회를 강타한 신자유주의(neo-liberalism)와 이로서 비롯한 배금주의와 물질주의의 만연으로 인하여 구성원이 삶의 가치와 목적을 망실한 상황으로부터 ‘열풍’의 동인을 진단한다(강성용 외, 2014; 나운경, 2013). 이는 오늘날 신자유주의가 정초하고 있는 시장중심주의와 이에 배태된 거래적, 도구적, 타산적 행위규범들이 폴라니(Polanyi)(1957)의 표현처럼 마치 ‘악마의 맷돌’(Satanic Mills)과 같이 공동체적이고 연대적인 우리의 정체성과 의미마저 분쇄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불안해지고 소외된 개인들의 삶의 의미 회복에 대한 허기가 이러한 인문학에 대한 ‘열풍’으로 표명되었다고 본다(이영원, 2011).

(ii) 둘째, 인문학의 실용적이고 전환적인 교육효과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견해의 경우에는 ‘인문학적 상상력’을 사회적 진보와 개선의 동인으로 이해한다(안세권, 2014). 이는 한국은 선진국 전환의 문턱에서 고착 된 일종의 ‘전환기의 늪’에 놓여있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관습화 되고 타성에 젖은 사유방식은 한계를 지닌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며, 틀의 밖에서 혹은 틀을 깨고 이루어지는 사유를 강조하는 인문학이 우리에게 진보와 개선을 위한 대안적 사유를 제시해 준다고 본다(조성택, 2015).

한편, 주지한 ‘인문학의 열풍’에 대하여 어떠한 견해를 견지하든 이들이 공통적으로 함의하고 있는 것은, 결국 우리 사회에서 ‘인문학’의 가치와 필요가 우리의 의식의 지평위에서 자각되고 있다는 점이며, 이러한 자각이 일반 대중들에게도 유의미하게 말해지고 공유되고 있다는 점이다(최은혜, 2014). 이러한 인식은 ‘인문학 평생교육진흥’의 아젠다로 구체화 되어 ‘인문학 대중화사업’이 국정과제로 채택됨으로써 본격화 되는 등 현실의 변화로 체감되고 있다(2016, 문화체육관광부). 이러한 변화에 대하여 한국의 ‘인문학 평생교육’은 국가주도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이에 소위 ‘위로부터 내려온’ 구성과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나운경, 2013; 박성정, 2001). 가령, 앞서 논의한 ‘인문학과 인문정신’은 현 정부의 문화융성과 창조경제 실현의 아젠다와 친화적으로 맞닿아 있는 측면이 있었으며, 이는 ‘인문학 평생교육 사업’이 범정부 차원의 관심의지 표방\*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바탕이 되었다.

한국의 ‘인문학 평생교육’은 정책권자와 국가가 이니셔티브를 지니고 추진했던 정책 프로그램 혹은 진흥사업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시민의 인문정신을 일종의 ‘사회적 공공재’로 파악하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함돈균, 2015). 그러나 이렇게 ‘위로부터의 기획’을 통해 마련된 프로그램은 그 형성에 있어서 그것에 영향을 받는 현실 학습당사자들의 고민지점과 의미요소를 섬세하게 반영하지 못하게 되기 쉬우며, 만약 이러한 섬세한 반영이 이루어지지 못

1) ‘개인과 국가가 성숙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의 삶 속에서 인문학을 향유하고 체험하는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문화융성위원회 출범식, 2013.7.25.)’

하는 경우 학습당사자의 수동성을 전제하거나, 혹은 학습당사자에게 보다 와 닿는 인문학 평생교육의 마련이 실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무겁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권향원, 2016; 김향식·최은수, 2010). 특히, ‘사업화 된 교육’의 시각은 자칫 수치화 된 투입지표 등 가시화 된 성과에 배타적으로 몰입하는 목적 전치로 이어짐으로서 정작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학습당사자들의 체험(lived experience)의 중요성을 간과하게 되어 ‘사물화 된 개인’의 문제로 이어지게 되는 위험을 지닐 수 있다. 더욱이 이러한 위험은 신자유주의로 초래된 개인의 사물화 현상에 대한 극복대안으로 모색된 인문학 진흥이 결국, 또 다른 신자유주의의 연쇄 고리 안에 놓이게 될 수 있다는 점에 아이러니가 있다. 따라서 인문학 평생교육의 ‘인프라적 마련’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마련된 교육이 삶 속의 학습당사자들의 의식 속에 어떠한 ‘현상’으로 비추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섬세한 이해 일 것이다(조성택, 2015; 최은혜, 2014). 그리고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습자들의 실질적인 변화가 교육의 과정 속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현장의 상호성이 담보되어야 한다(정민승, 2008).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즉, 성인학습자의 인문학 평생교육에 있어서 학습의 체험이 이들의 의식 속에 어떠한 ‘현상’으로 비추어지고 있으며, 이에 어떠한 ‘내적변화’를 겪는지를 학습당사자의 관점으로부터 조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조망을 통해 “보다 와 닿는” 인문학 평생교육을 위한 ‘학술적 읽’의 단초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특히, 전환기 성인학습자들은 학력인정, 직업탐색, 취미·여가, 자기계발 등의 학습 수요 보다는 인생관이나 세계관과 같은 가치관 정립에 지향된 자기탐색의 인문학 소양에 관심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평생교육 차원의 인문학정책 및 관련연구들에서는 성인학습자들의 인문학 평생교육의 고민지점과 의미요소들은 충분하고 풍부하게 조망되지 못했던 일면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들 성인학습자들을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 한편, 어떠한 체험에서 비롯한 개인의식 속의 ‘현상’을 조망하는 데에 있어서 ‘현상학 체험연구의 접근’은 우리에게 방법론적인 통찰을 부여해준다(권향원, 2016; 이남인, 2014). 따라서 본 연구는 ‘현상학적 체험연구’의 방법론적 전략을 선택하였고, 현상학적 체험연구의 다양한 전통들 중에서 특히 콜리지(Colaizzi)(1978)가 제시한 자료수집 및 자료 분석의 가이드라인을 따랐다. 이에, 본 연구는 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다루었다.

**【연구문제 #1】** 성인학습자의 의식 속에서 인문학 평생교육 학습체험은 어떠한 구조와 내용을 지니는 의미로서 출현하는가?

**【연구문제 #2】** 신자유주의적 맥락에서 성인학습자는 인문학 평생교육 학습체험을 어떻게

수용하고, 체험의 결과 어떠한 내적변화로 나타나는가?

## II. 국가주도의 평생교육과 당사자 관점에서의 전환

### 1. 한국의 인문학 평생교육 체계 및 선행연구

#### 가. 한국의 평생교육 체계

‘평생학습’(life-long learning)은 학습이 삶의 특정시기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 전 반을 통하여 사회의 모든 분야에 걸쳐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시하는 개념이다(Jarvis, 2007; 나운경, 2013). 평생학습의 개념화가 본격화되기 이전에 학습은 제도화 된 공식적 교육기관에서 특정한 학령시기의 범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좁게 정의되었다. 그러나 학습에 대한 이러한 협소한 정의방식은 이후 학습은 개인을 특정한 ‘산업적 쓰임새’를 위한 도구적·객체적 범주에서 이해하는 데에서 비롯하였다는 비판적 자각으로 추동되었다(Aspin & Chapman, 2007; Candy, 1991). 이러한 자각은 개인이 자신의 욕구와 의미에 따라 자기주도적으로 이루어지고 평생의 발생주기(life-cycle)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자율적·주체적 범주의 새로운 학습권으로서의 전환을 요청하게 되었으며, 이로서 보다 확장된 의미로서 ‘평생학습’의 개념\*과 접근이 출현되었다(Cross, 1981). 그리고 이러한 평생교육의 개념은 오늘날 고령화 사회의 도래나 개인의 삶의 질에 대한 증대된 관심과 수용증대로 인하여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인문학의 어원인 후마니타스(Humanitas)는 그리스어 파이데이아(Paideia)를 라틴어로 옮긴 말로서 ‘인간의 능력을 계발하고 자아를 실현해 나가는 교육’의 개념을 말한다. 또

\* 평생학습은 학습권으로서의 평생학습, 일반교양으로서의 평생학습, 직업재교육으로서의 평생학습에 대한 관점을 포괄한다. 먼저, 학습권으로서의 평생학습권은 기본권적 인권의 하나로 사회적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참여를 포함하고, 일반교양으로서의 평생학습은 취미, 교양, 문화, 스포츠, 여가활동 등과 같이 비전문적이고, 비실용적이며, 비직업적인 평생학습으로 개인의 자아실현과 인격도야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직업재교육으로서의 평생학습은 산업계 및 기업과 관련이 있는 성인의 직업교양을 위한 재교육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학습이다(유네스코 세계성인교육회의, 2009; 손승남, 2015). 우리나라 성인 계속교육 지원에 대한 평생교육의 방향을 살펴보면 학력인정, 교육훈련, 자격연계, 경력개발, 사회참여 역량지원, 학습형 일자리 개발 등 주로 인적자원 개발에 초점이 맞춰진 측면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제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2013).

한, 인문학(liberal)은 고대 그리스에서는 자유인을 뜻했으며, 인간의 내적 통찰에 있어서 인간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교양으로 확장되었다고 할 수 있다(정민승, 2008) 한편, 현행의 국가중심의 평생교육 체계는 증대하는 수요자 니즈(needs)의 다양성과 실효적으로 맞닿는 데에 있어서 미흡한 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수요자의 욕구와 요구가 다양하고 복잡한 것을 특질로 하는 ‘인문학 평생교육’의 영역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는 더욱 현저하게 나타난다고 할 것인데, 이에 오늘날 다양한 교육주체들의 프로그램들이 보완적으로 발생 및 제공되고 있다. 이를 대중인문학 강좌의 맥락에서 제공주체별로 구분하여 예시한다면 <표 1>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표 1> 대중인문학 강좌의 제공주체별 유형

유형	제공주체	내용 및 특질
국가 주도형	정부 및 공공기관	1)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무료 강좌 형태로써 지자체, 지역문화재단, 도서관, 박물관 등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한 인문학 프로그램은 보통의 시민들이 제약과 조건 없이 참여할 수 있으며, 자기성찰과 생활개선 및 사회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 모색의 실천성을 가짐
		2) 한국연구재단 등 공공기관 중심으로 운영되는 인문학 대중화 사업 관련 강좌로써 인문학을 통해 시민들의 자유로운 공동체를 형성해 왔으나, 국가지원으로 인한 엄격한 선정과 관리를 받게 되어 운영에 대한 자율성이 침해된다는 우려가 있음. 또한, 하향식(top-down)의 프로그램으로 수요자의 반영이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가 있음
커뮤니티 주도형	비정부형 시민조직 (non-governmental)	3) NGO, 인권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교도소 수감자, 장애인, 노숙자, 성노동자 등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강좌로써, 소외계층 대상의 자활과 치유를 통해 자립의지를 북돋우려는 보조 수단이 되기도 하고, 자존감 고취나 주체성 형성에 일조하여 삶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정립하는데 도움을 줌
	비수익형 운영단체 (non-profit)	4) 자생적인 소규모 인문학 아카데미 공간의 강좌로써, 대부분 유료 기획 강좌와 세미나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인문학적 실천의 성격이 강하고, 아카데미 인문학의 대안적 성격을 갖고 있는 반면에, 수익성을 담보 받지 못해 지속 가능성의 위협을 받는 현실임
민간 주도형	수익형 민간조직 (for-profit)	5) 기업과 일부 대학에서 CEO인문학 등의 강좌를 개설하여, 인문학적 지식과 상상력에 기반을 둔 창의적 사고를 통해 인문학의 지혜, 통찰력, 종합적인 판단능력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수강료가 비싸고 강의 수강조건을 제한하는 등 자본에 봉사하는 인문학 도구화라는 비난을 받기도 함
		6) 은행, 백화점 등 기타 상업적 시설과 기관에서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강좌로써, 인문학을 통해 지적, 정신적 결핍의 채움 욕구나 자 본의 이해에 영합하는 경향도 있어 인문정신 구현의 구체적인 효과 성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움
출처: 천정환(2015)의 논의를 재정리 및 유형화		

한국의 인문학 평생교육은 설사 그것이 사부문의 교육주체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주로 국가주도의 ‘하향식 공모사업’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의 특색과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장기적인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이 어려운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우리나라 ‘인문학 평생교육’은 학력인정, 교육훈련, 학습형 일자리 개발 등 지나치게 인적자원개발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거나, 혹은 인기 강사나 흥미중심 화제에 경도되어 나타나는 일면이 있다. 더하여 민간이나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지는 ‘인문학 평생교육’의 경우에도 마치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소위 ‘강단 인문학’을 단지 장소만 학교 외부로 옮겨놓은 듯한 강의형의 전달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유범상·이현숙, 2015). 이에 따라 교육주체가 누구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마련된 교육프로그램과 수요자의 관심 방향의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안고 있다고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2010년대 이후, 인문학을 키워드로 삼은 팟 캐스트, SNS 기반의 방송, 시민인문학 도서 등에서 불고 있는 열풍은 갈 길이 마땅치 않은 이러한 수요로 인하여 고양된 것이 아닐지 아울러 조심스럽게 진단해 볼 수도 있겠다(천정환, 2015).

이러한 논의가 함의하는 것은 한국에서의 평생교육 특히, 수요의 다양성을 특징으로 하는 인문학 평생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 학습당사자인 ‘수요자의 관점’으로부터 평생교육을 조망하려는 접근이 요청된다는 것이다. 특히, 학습당사자의 구체적인 고민지점과 의미요소를 섬세하게 잘 담아낼 수 있도록 정치하고 엄밀한 방법적 전략과 분석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시각에 담아 기존의 평생교육 분야 연구들을 독해하였고, 다음 장에서 이를 논의하였다.

#### 나. 연구동향과 사각지대

지금까지의 평생교육 분야의 경험연구들은 주로 정량화 된 ‘만족도’(satisfaction)나 성인학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demographic characteristics)의 통계적 상관성을 밝히고자 하는 양적연구의 정향을 바탕으로 진행되어 왔던 경향을 보인다(이희정, 2011; 전주성·오혁진, 2003; 최돈민 등, 2004; 최지수, 2014). 그리고 평생교육 분야의 20년(1995-2014) 간의 연구들(N=531)을 전수조사 하여 분석한 윤옥한(2015)의 연구에 따르면, 기존의 연구는 ‘평생교육 개

념', '제도', '조직', '평가', '교수법', '자료개발', '프로그램 운영', '컨설팅' 등 대부분 평생교육 조직과 프로그램 운영 및 제공과 같은 '공급자 시각'에 정초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는 앞에서 주지하였던 학습당사자로서 '수요자 시각'의 반영이 상대적으로 적게 이루어져 왔음을 함의한다.

다른 한편, 평생교육관련 연구 중에서 상대적으로 소수( $N=15$ )이지만 '수요자 시각'을 구체적이고 심층적으로 탐침하고자 학습당사자에 대한 직접 대면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질적연구'들이 아울러 확인되기도 하는데, 이들을 다루어진 주제별로 유형화하면 평생학습자(41.8%), 기관/현장(21.3%), 프로그램/교육과정(20.5%), 학습과정(8.5%), 평생교육자(7.8%) 순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적용된 방법론의 유형을 기준으로 구분하자면, 내용분석(51.8%), 사례 연구(32.6%), 현상학(3.5%), 생애사 연구(3.5%), 내러티브 탐구(3.5%), 문화기술지(2.8%), 실천연구(1.4%), 근거이론(0.7%) 순으로 파악 되고 있었다(김영석, 2014). 비록 기존의 평생교육 분야의 질적연구는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평생교육의 다양한 측면 특히 '수요자 측면'을 조망하였다는 데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e.g., 김향식·최은수, 2010; 김호연, 2010; 나운경, 2013; 손승남, 2015; 안세권, 2014; 유범상·이현숙, 2015; 정민승, 2008; 양은아, 2009; 양은아; 2010, 양은아; 2011, 양은아; 조성택, 2015; 최은혜, 2014; 천정환, 2015; 함돈균, 2015; 한승희, 양은아, 2007).

한편, 기존 연구의 검토결과 적어도 연구자들의 독해범위 내에서 판단하기에 지금까지 인문학 평생교육 영역에서 학습당사자로서의 학습과정을 통해 어떠한 체험적 의미를 의식 속에 담았고 어떠한 내적변화를 경험하였는지 등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probing)는 매우 희소하였다. 본질적으로 인문학은 교육 현장으로부터 인문학의 주제를 발견해야 하고, 학습자 스스로가 참여하는 민주적인 교육 방법이어야 하며, 학습자들의 삶의 맥락에서 구체적인 인간 학습을 고려해야 한다(정민승, 2008).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인학습자들의 '인문학 평생교육'의 학습체험과 내적변화에 대한 삶의 사각지대에 대한 자각을 바탕으로 해당 분야 연구의 필요성을 도출해 낼 수 있었다.

## 2. 현상학적 접근의 개념 및 적용타당성

질적연구방법으로서 현상학은 “어떠한 대상에 대한 경험이 체험자들의 의식 속에서 어떠한 의미로서 지각되는가?”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 연구전략을 의미한다(권향원, 2016:373). 그런데, 개인은 본질적으로 '주관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비록 공통된 대상에 대하여서도 개인마다 지각된 경험의 내용은 반드시 같지 않다. 따라서 개인의 대상에 대한



성들, 가령 “세 번으로 이루어짐”이나 “세 각으로 이루어짐” 등을 주제(theme)로서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공통된 주제들을 바탕으로 개별도형들을 ‘삼각형입’이라는 본질로 함께 아우를 수 있다.

이때 개별도형을 주관적인 개인의 경험이라고 생각해본다면, 도형들에 내포된 주제들과 본질은 개인들이 공유하고 있는 체험의 본질구조라고 말할 수 있겠다. 현상학 질적연구는 마치 우리가 개별도형들로부터 공통요소를 추상해 내듯 개별경험으로부터 이들을 일체감 있게 아우르는 주제와 본질을 추상해 내는 작업을 의미한다. 그리고 도출된 주제-본질의 위계적 구조를 ‘본질구조’라고 부른다. 요컨대, 현상학적 질적방법은 일반적으로 개별경험으로부터 연구자가 직관을 바탕으로 체험의 본질구조를 환원해 내는 분석방법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남인, 2014).

현상학적 질적방법의 이론적 의의는 사회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학술적 앎’을 추구하는 데에 있어서 개인들의 주관적이고 개별적인 경험들로부터 출발할 것을 강조한다는 점에 있다(Moustakas, 1994). 비록 양화된 도구를 사용한 인식조사 등도 개인들의 시각과 인식을 분석의 대상으로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앎’이 ‘당사자로서 개인’으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라, 연구자의 이론적 선개념으로부터 미리 연역적으로 규정되어 확정된 ‘본질구조’에서 출발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는 ‘당사자로서 개인’으로부터 앎이 비롯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들에게 의미 있게 경험되고 있을 어떠한 주제(theme)가 연구자의 시야에 영영 포착되지 않도록 하는 문제를 내포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현상학적 질적방법은 ‘체험주체인 개인’으로부터 앎을 비롯하고자 하는 귀납적 접근을 선호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연구자가 직관력을 바탕으로 수집된 개별경험 자료로부터 주제와 본질의 구조, 즉 본질구조를 환원해 낼 것을 요청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우리의 대상에 대한 앎을 보다 순수하게 당사자 혹은 수요자로부터 출발함으로써 대상에 대한 섬세하고 심층적이며, 구체화 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다는 데에 있다. 이는 본 연구가 출발점으로 삼고 있는 ‘인문학습 성인학습자’의 학습체험과 내적변화에 대한 ‘수요자 시점에서 비롯된 앎’이라는 사각지대에 대한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 있어서 현상학적 접근은 방법론적 적합도 뿐 아니라, 이념적 정합성이 높다고 보았다.

### III. 분석방법

## 1. 자료수집 및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연구자중 한명은 서울시교육청 공공도서관 평생교육 인문학 담당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인문학 강좌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성인학습자의 인문학 평생교육 학습과정의 전 과정을 참여관찰 하였다. 따라서 성인학습자의 인문학 평생교육 참여과정의 전반, 즉 비언어적 몸짓, 분위기까지 폭넓게 관찰하고 기록하여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었다. 또한, 인문학 강좌 수료식을 겸한 포커스 그룹 면담을 통해 인문학 평생교육 에 대한 니즈와 학습 체험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인문학 평생교육 학습체험의 과정에서 연구자와 성인학습자 간의 충분한 라포(rapport)가 형성되었고, 심층면담을 위한 중심주제와 주요 질문을 준비하였다. 다음으로 적극적인 응답의사 및 프로그램 참여에 있어서의 몰입과 열의를 기준으로 한 의도적 선별의 ‘목적적 표집’(purposive sampling)을 하였다(Miles & Huberman, 1984).

이렇게 선별된 표집결과의 연구 참여자는 총 23명이었고, 「2016년 1월 ~ 2016년 2월」의 약 2개월 동안 ‘면대면 심층면담’이 이루어졌다. 연구 참여자의 유형 분석결과, 성별(남성 9명, 여성 14명), 전공(인문계열 18명, 자연계열 3명, 기타 2명), 직업(직장인 5명, 프리랜서 9명, 학생 1명, 은퇴자 및 주부 9명) 등 다양한 구성을 보였다. 연구 참여자의 인문학습 경험은 1년 미만 2명, 5년 이하 4명, 5년 이상에서 10년이 13명의 분포를 보였다. 연구 참여자의 심층면담에 앞서 연구자들은 성인학습자의 인문학 평생교육 학습체험에 대한 인식대상의 의미를 사전에 알 수 없었다. 또한, 연구자들은 심층면담에 임하면서 학습자에 대한 구조화 된 이론이나 선개념(pre-conception)을 판단중지(epoche)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면서, 연구 참여자를 있는 그대로 대면하고자 노력하였다.

심층면담은 인문학 평생교육 학습체험 과정의 전반을 폭넓게 관찰하고 남긴 기록물을 가지고, 열린 질문으로 이루어졌으며, 면담장소는 인터뷰가 자유롭고 편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람들의 왕래가 없는 도서관 사무실에서 진행되었다. 심층면담에 앞서 학습자에 대한 인식과 편견을 판단중지(epoche)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였고, 현상학적 인터뷰(phenomenological interview)로서 열린 질문(open question)을 하여 연구의 핵심주제를 효과적으로 끌어낼 수 있도록 하였다.

응답자의 기본정보를 <표 2>에 요약적으로 제시하였고, 당사자 식별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윤리적 고려를 바탕으로 대상자의 실명은 임의로 부여된 아이디(e.g. SUB##)로 대체하였다.

성인학습자의 인문학 평생교육 학습체험에 대한 현상학적 질적연구

<표 2> 연구 참여자 기본정보

번호	대상	성별	나이	학력	직업	학습이력
1	SUB01	여	29세 (미혼)	대학중퇴 (삼성디자인대학)	무직	문학특성화, 인문학 2년
2	SUB02	여	39세 (결혼)	대학원졸업 (국문학,교육학)	강사	문학특성화, 인문학, 독서회활동 4년
3	SUB03	여	50대 (결혼)	대학졸업(미술)	북디자이너	문학특성화, 인문학 5년
4	SUB04	여	60대 (결혼)	대학졸업(교육학)	교사퇴직	문학특성화, 인문학 1년
5	SUB05	남	63세 (결혼)	대학졸업(국문학)	미국문화원등 공무원 퇴직	문학특성화, 인문학 5년
6	SUB06	여	40대 (결혼)	대학원졸업 (지역사회개발)	논문컨설턴트 등 프리랜서	인문학강좌, 학부모교육 3년
7	SUB07	여	36세 (미혼)	대학졸업 (경영학과)	카피라이터, 시나리오작가	문학특성화, 인문학 10년
8	SUB08	여	63세 (결혼)	고졸	주부	문학특성화, 인문학 5년
9	SUB09	남	40대 (결혼)	대학원졸업 (산업디자인)	다큐멘터리 영화감독	인문학 7년
10	SUB10	남	66세 (결혼)	대학원졸업(신학)	은행퇴직, 목사	신학, 인문학 10년
11	SUB11	여	29세 (미혼)	대학졸업 (철학, 영문학)	인문학관련출판사 기획	인문학 5년
12	SUB12	남	40대 (결혼)	대학원졸업 (경제학,사회복지)	경제학교수,독서 논술강사	경제학, 인문학, 독서논술 1년
13	SUB13	여	61세 (결혼)	대학졸업 (농수산물가공저장)	회사원 퇴직	인문학 3년
14	SUB14	남	48세 (미혼)	대학원졸업 (현대문학비평)	시험준비, 문학작가준비생	문학특성화, 인문학 5년
15	SUB15	남	47세 (결혼)	대학원졸업(기업교육)	한화LNC 기업교육	교육학, 인문학 7년
16	SUB16	여	38세 (결혼)	대학원졸업 (무대미술, 심리학)	프리랜스 (미술치료)	심리학, 예술, 인문학 8년
17	SUB17	남	71세 (결혼)	대학졸업 (국문학,경제학)	교사퇴직	문학, 인문학 10년 이상
18	SUB18	여	48세 (결혼)	대학원졸업 (컴퓨터학/영어학)	프리랜서 (영어강사)	영어, 문학, 신화 5년 이상
19	SUB19	남	30대 (미혼)	전문대졸/방통대재학 (전자계산/국어국문학)	공연기획·제작가/ 작가	문학, 예술, 인문학 5년 이상
20	SUB20	남	73세 (결혼)	대학졸업(교육심리)	교사퇴직	교육, 문학, 인문학 10년 이상
21	SUB21	여	30대 (미혼)	대학졸업 (유아교육/문헌정보학)	회사원	인문학 5년 이상
22	SUB22	여	41세	대학원재학	컴퓨터업계퇴사	컴퓨터, 경영, 심리,

			(미혼)	(컴퓨터, 경영학/심리학)	후 대학원재학중	인문학 5년 이상
23	SUB23	여	56세 (결혼)	대학졸업(국문학과)	교사퇴직	문학, 예술, 인문학 5년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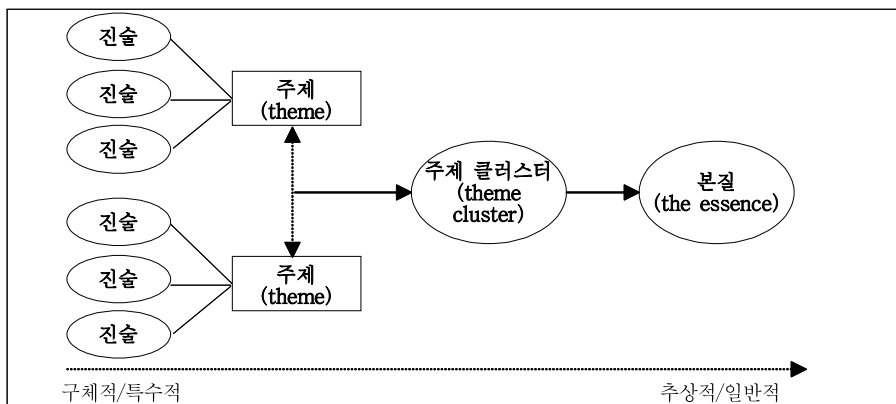
면담을 통한 자료수집에 앞서서 연구자들이 주요하게 고려한 것은 개인은 자신의 내면을 타인에게 털어놓는 데에 있어서 일종의 심리적 저항감과 이에 따른 자기규제의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이다(조영달, 2005). 이에 응답자에게 심리적 안전감을 부여하고 이를 바탕으로 응답자가 자신의 체험에 대한 풍부한 소통을 유도하기 위한 연구자의 사회적 소통기술의 중요성이 강조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결과는 분석이 대상으로 삼는 자료의 품질과 직결되어, 연구 산출물의 타당성과 신뢰성, 그리고 의미와 중대한 관계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자는 김영천(2011)의 제안을 따라, 학습경험에 대한 솔직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때 연구자들이 11개월의 참여관찰을 아울러 수행하였다는 점은 면담의 소통적 품질 제고에 긍정적인 바탕으로 작용하였다. 심층면담은 Seidman(2006)의 제안을 따라, 그동안 참여관찰을 통하여 공통적으로 인지된 인문학 평생교육에서 출발하여 연구 응답자의 인문학습 체험에 초점을 두고서 일반적인 열린질문(open question)에서 출발하여 응답자가 특히 중요한 것으로 판단하는 의미요소의 지점에 이르러서는 이를 보다 심층적으로 탐구(probing)하여 들어가는 ‘깔대기 기법’(funnel method)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성인학습자의 내적 변화와 삶의 적용에 대한 대화를 통해 인문학 평생교육 학습체험의 결과의 변화들을 구체적이고 깊이 있게 포착해 낼 수 있었으며,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상황을 왜곡하지 않고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진실 되게 기술하였다. 심층면담에 앞서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목적을 충분히 알리고 사전 동의를 얻어 면담 내용을 녹음하였고, 수집된 녹음자료를 전사하여 녹취록을 작성하였다. 또한, 연구과정에서 습득된 정보는 본 연구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연구 참여자의 정보를 보호하는 등의 연구윤리에 입각하였다(Seidman, 2006).

## 2. 자료 분석

수집된 질적자료의 분석은 ‘현상학적 질적연구’의 기법적 제안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를 위해 자료(data)로부터 주제(theme)를 추상화 내는 데에 있어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주제분석’(thematic analysis)을 활용하였다(Braun & Clarke, 2006). 이에 본 연구에서의 자료 분석은 연구 참여자의 인문학 평생교육 학습체험 과정에 초점을 두었으며, 학습내용과 행동을 탐색하고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주제 분석(thematic analysis)을 통해 주제와 본질을 추상해 내었

다. 또한,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연구 참여자와의 심층면담을 통해 확보된 인문학 평생교육 학습체험의 탐색 내용을 단순히 요약하고 정리하여 제시한 것이 아니라 현상학적 입장을 견지하여, 성인학습자의 인문학 평생교육 학습체험에서 나타난 공통적으로 내포된 주제를 직관적-논리적으로 파악하였으며, 본질에 대한 의미구조 작업 수행 후, 연구 참여자의 검증과정을 거쳤다. 또한, 공동연구자 간의 수차례의 교차검증을 거쳐 자료 분석의 현상학적 환원의 엄밀성을 높임으로서 연구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현상학적 체험연구가 ‘본질직관’과 ‘자유변경’의 방법을 통해 자료에 내포되어 있는 공통적 주제와 본질의 구조 및 내용을 탐구하는 것에 기초한 것으로 자료해석과 분석은 ‘본질직관’을 통해 순수하게 ‘환원’의 절차를 바탕으로 수행되었다. 주제 분석이란 질적 자료에서 연구문제와 대응되는 단어, 문장, 구, 문단 등 의미단위(meaning segment)를 진술로서 식별해내고, 이들 중 공통된 주제(theme)로 범주화 할 수 있는 의미 단위들을 유형화(categorization)하여 현상학적 의미의 ‘본질구조’를 파악하는 분석기법을 뜻한다(권향원, 2016)[[그림 2] 참조].

본 연구는 해석학적 현상학의 귀납적 방법을 채택하여 성인 인문학학습자의 체험사례를 바탕으로, 표집신청 → 자료수집 → 자료분석의 유기적인 단계를 거쳐 이루어졌다. 또한, 각 단계의 수행에 있어서 인식론적 논점을 충실히 정초하여 반영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보다 효율적인 분석을 위해 ‘참여관찰’ 및 ‘심층면담’을 통해 수집 및 취합된 질적자료를 질적자료분석도구(Qualitative Data Analysis Tool)인 Atlas.ti 소프트웨어로 전사(transcription) 후 불러들여 분석에 용이하도록 가공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Miles & Huberman, 1984; 김영천, 2011). 질적자료는 일반적으로 양적으로 방대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러한 질적자료를 보다 효율적으로 다루기 한 도구가 요청된다.



[그림 2] 주제분석의 개념도

출처: Saldaña(2012:12)의 재구성

한편, 현상학 질적연구에 있어서 어떠한 자료수집 및 자료분석 수행과정이 보다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이견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Colaizzi(1978)가 제시한 수행과정의 가이드 라인을 선택하여 따랐으며, 이는 다음과 같은 질적연구의 수행단계를 제시한다. (1) 첫째, 수집된 자료의 분석에 앞서서 연구자들은 자료전체에 대한 초별 읽기를 통해 자료전체가 담고 있는 의미를 파악한다. (2) 둘째, 연구문제와 대응하는 진술들을 되도록 포괄적으로 많이 식별하여 목록을 작성한다. (3) 셋째, 수집된 진술들에 대한 심층적 읽기를 통해 그것들이 암묵적으로 함의하는 것을 일종의 개념적 메모 혹은 해석된 의미로 기록한다. (4) 넷째, 이러한 메모를 바탕으로 공통주제를 구축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5) 다섯째, 본질구조를 찾아내어 구성하고, 도출된 본질구조가 의미하는 바를 아울러 기술한다. (6) 여섯째, 마련된 본질구조와 기술을 보다 명료한 진술로 개선한다. (7) 일곱째, 분석결과를 응답자에게 공유하거나 그들의 의견을 들어 연구결과와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한다. 한편, Colaizzi(1978)는 분석된 결과를 제시하는 데에 있어서 탐색된 각각의 '본질'에 대하여 연구자의 해석적 견해가 투영된 요약 즉 '본질기술'을 첨부하도록 하는 데에서 특질을 찾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도 분석결과를 제시하는 데에 있어서 '진술-주제-본질'의 본질구조와 본질기술을 담았다.

## IV. 분석결과

### 1. 인문학 평생교육 학습체험의 본질구조

'현상학적 주제분석'을 통해 학습당사자의 인문학 평생교육 학습체험의 본질구조를 탐색한 결과 학습당사자는 크게 다음과 같은 '언음', '비움', '나눔'의 세 유형의 본질을 통해 학습체험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가령, (i) 첫 번째 유형으로, '언음'이라는 본질구조는 인문학 학습 체험을 통해 학습당사자가 어떠한 의미, 전환, 계기 등의 의미요소들을 자신에게 더 하는 체험을 지시하였다. (ii) 두 번째 유형으로 '비움'이라는 본질구조는 반대로 학습체험을 통해 학습당사자가 내면에 담고 있던 어떠한 것들 특히 부정적인 의미요소들을 비워내는 혹은 키워내는 체험을 지시하고 있었다. (iii) 세 번째 유형인 '나눔'은 주지한 '언음'과 '비움'에서 비롯한 내적변화를 자신의 내부에서만 아닌, 외부로의 공유와 확장, 그리고 이를 통한 변화와 전환을 추동하고자 하는 체험을 지시하였다. 학습당사자의 학습체험에 있어서 파악된 본질구

조를 다음 <표 4>에 나타내었다.

<표 4> 연구 참여자의 인문학 평생교육 학습체험 본질구조

본 질	주제 클러스터	주 제
연 음	객관화 (관점전환)	다른 응시자로서 자아를 들여다보는 자각이 이루어짐
		문제의 본질을 직관하는 능력이 생김
		현실적 삶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여유가 생김
		생각에 대한 인식능력과 판단능력이 생기면서 진리탐구의 자세가 됨
		삶의 반성으로 현실 문제를 자각하면서, 새로운 가치관의 변화를 겪음
	지평확장 및 통찰	물신주의에서 벗어나 사고확장을 통한 변화된 삶의 판단기준이 생김
		자기정체성을 고민하면서 사회통찰 과정을 경험함
		소유 지향적 삶에서 벗어나 새로운 지평의 정신적 풍요를 경험함
		사고의 확장을 경험하고, 지평이 확장되면서 통찰력이 생김
		사회현상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김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게 되고,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다양해짐
	탈출구	내적변화, 가족관계, 사회현상, 비판능력이 생겨 삶의 변화를 겪음
		다양한 강좌를 들으면서 답답한 갈등을 해결하는 탈출구를 경험함
		자신을 힐링하고, 사고를 확장하는 행복한 과정임
	활용 및 목표	삶의 재충전과 윤희유를 경험하며, 목표를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됨
		전문가가 되어 배운 지식을 활용하는 모습을 경험함
		문학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인문학습의 필요성을 느낌
		시대의 흐름에 맞는 삶의 문제해결로서의 삶의 충족을 원함
		독자를 감동시키는 고양된 마음의 작가의 꿈을 다질 수 있음
	사고의 지평확장과, 자신의 일에서의 시선과 자세 확장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창조적 연구 활동에 도움이 될 것 같음		
일반 구조적 기술 (본질기술)	객관화 능력, 통찰력과 지평확장, 인식전환 및 치유, 꿈과 목표에로의 생성능력을 얻는 것으로 나타남	
비 음	욕 심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인정하며, 욕심에 대한 관리능력이 생김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반성과 성찰의 과정을 경험함
		물질적 기준에서 벗어나 성찰로서의 자녀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함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순간순간을 행복하게 여여가고자 함
	인식전환을 경험하며 배려하고, 베풀 줄 아는 가치판단이 가능해짐	
부정성	상처에 대한 상흔이 덜 아프게 느껴지는 치료를 경험함	

		<p>자기양심을 마주하며 부정성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용기와 자각이 생김</p> <p>부정성을 견어내고 자신에게 솔직해 지면서 중압감에서 벗어나</p>		
	<b>정화</b>	<p>비우고 털어내는 정화작용과 자기통제가 가능해짐</p> <p>고통과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각을 경험하며, 집착에서도 해방됨</p> <p>너그러워지고, 배려하고, 베풀면서 기쁨과 행복을 느낌</p> <p>무미건조한 삶에서 벗어나 욕구불만을 해소함</p>		
	<b>일반 구조적 기술 (본질기술)</b>	<p><b>관계, 갈등, 상처 등 문제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인정함으로써 정화작용과 함께 삶의 전환점을 겪게 됨</b></p>		
<b>나눔</b>	<b>공감·교감</b>	<p>비슷한 고민의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새롭게 깨어나는 느낌으로 거듭남</p> <p>경험을 나누고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감정치유와, 문제해결을 시도함</p> <p>관심주제에 대한 공감의 즐거움이 있음</p> <p>문제해결은 내 몫이지만, 대화하고 공감할 수 있는 것 만으로도 좋음</p>		
		<b>소통</b>	<p>인문학 강좌가 소통의 장으로 이어지면 자기성찰의 확장이 빨라짐</p> <p>학습내용을 정리하고 공유하여 사람들이 공감해 주면 활력소가 됨</p> <p>토론은 다른 관점을 파악할 수 있어 깊이 있는 사고가 가능해짐</p> <p>비슷한 사람끼리 관심주제를 공유하며 마주보고 소통하는 것이 좋음</p> <p>관심 주제에 대한 소통채널을 마련해 놓고 각각에 맞는 토론을 시도함</p> <p>마음을 달래거나 정신적 문제는 소통으로 이어져야 효과가 있음</p> <p>삶의 가치관, 세계관 등에 대한 공감과 공유의 필요성을 느낌</p> <p>다른 사람의 질문을 통해 다양한 관점을 접하고 수용하는 자세가 됨</p> <p>발표하고,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창작 의욕을 불러옴</p> <p>미니픽션 쓰는 작가희망생으로써 강사님의 피드백이 많은 도움이 됨</p> <p>인간의 행복은 서로 소통하면서 자기문제를 풀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함</p>	
			<b>참여·실천</b>	<p>자각과 비판능력이 생기면서 양심의 갈등, 삶의 깊은 고뇌를 느끼게 됨</p> <p>삶에 대한 통찰이 생기며, 새로운 인식으로 거듭남</p> <p>생각과 관점의 변화를 일으키며 비판의식이 생겨 사회참여로 확장됨</p> <p>관점의 변화와 실천의식이 생겨 사회봉사, 사회참여 의식의 동인이 됨</p> <p>삶의 무미건조함에서 벗어나 의욕적이고 능동적인 생성의 힘이 됨</p> <p>자신만의 주체적인 판단능력이 생김</p> <p>판단력을 길러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사명감을 가짐</p>
				<b>일반 구조적 기술 (본질기술)</b>

## 2. 인문학 평생교육 학습체험의 내용

### 가. '연음'을 향하여

인문학은 인간과 인간 삶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성찰하고 치유하는 성찰의 과정으로서 '나는 누구이고, 지금 여기는 어디인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가' 등과 같은 실존의 문제를 탐색하고 반성하는 비판의식을 기본으로 한다. 생활세계에서 연구 참여자는 인문학 평생교육 학습체험의 내적변화로써 '연음'의 본질구조를 가졌고, 구체적으로는 '객관화(관점전환)', '지평확장 및 통찰', '탈출구', '활용 및 목표'와 같은 주제로 유형화 할 수 있다. 먼저, '학습객관화(관점전환)'에서는, 학습체험으로 인해 자아를 다른 응시자로서 바라보는 자각의 힘을 갖게 함으로서, 자신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혀지고, 삶의 문제해결에 있어서도 자각이 생기면서 현실적 삶의 수용 능력이 생성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자아로서 자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응시자로서 자아를 바라보는 것을 자각이라고 생각해 봐요. 나를 먼저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인문학은 하나의 응시자로서 나를 바라보게 하는 시야를 넓혀 주는 거예요." "빠져나올 수 있는 자각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자각하고 보니까 '찌그러진 내 삶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니네, 도약을 위한 수단일 수도 있고, 흐트러진 과정도 나 자체였고, 그 삶도 나름 괜찮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한, 생각에 대한 인식능력과 판단능력이 생겨 자신의 사고를 바로 잡으려는 진리탐구의 자세가 되고, 삶을 반성하려는 자세가 되어, 현실 문제를 자각하게 되는 새로운 가치관의 변화를 겪고 있었다.

*"인문학 강좌를 들으면 내 생각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던가, 사유에서도 나 자신을 바로잡고 싶고 이런 면이 있어요. 뭔가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을 발견해 내고 근본적으로는 진리 탐구인 것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삶의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나도, 엄마도 당장 죽을 수도 있는데 하고 싶은 일을 뒤로 미루면서 열심히만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신자유주의시대에서의 인간의 노동상품화 현상은 평생교육 차원에서 인적자원개발(HRD)

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성인학습자의 인문학 평생교육은 자신의 삶과 경험에 대한 성찰적 능력으로서 의미가 있다. 인간 스스로가 자신의 존재와 삶을 반성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이 겸비되어야 한다(한승희·양은아, 2007).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서도 인문학 평생교육 학습체험은 성찰적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 참여자는 ‘지평확장 및 통찰’에 있어서 자기정체성을 고민하면서 사회에 대한 통찰의 과정을 경험하고, 삶의 가치기준에 있어서도 소유지향적 삶에서 벗어나 존재론적 인식으로서 정신적 풍요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기존의 근대적 물질주의에서 벗어나 고양된 인문정신으로서의 변화된 삶의 판단기준을 정하고, 지평확장과 통찰력의 자각을 가지게 되면서 세상을 보는 시각이 구체적이면서도 다양하게 확장할 수 있는 능력으로 발현되어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구 참여자들은 인문학 평생교육 학습체험을 통한 내적변화로서 가족 간의 관계가 개선되어지고, 사회현상에 대한 비판 능력과 통찰 능력이 생겨 생활세계의 삶이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삶의 실천을 경험하고 있었다.

*“세상을 다 내려다보는 희열 같은 느낌 이예요. 산에 올라가 본 사람은 앞도 보이고, 뒤도 보여요. 그런데 산에 올라가 보지 못한 사람은 앞뒤가 안 보이거든요. 산에 올라가서 다 보이니까, 다른 일도 멀리 보이는 거예요. 인문학습을 꾸준히 지속하다 보니 하나씩 확장되면서 연결고리가 되어 전체적인 안목이 생기는 거죠.” “상대의 입장에서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 마음, 내 자각도 그렇고 세상을 보는 시각도 구체적이게 되고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로 세상을 보게 되고, 그동안 보이지 않은 것들도 보게 되고, 절대 긍정과 절대부정은 없는 것 같아요.”*

연구 참여자들에게 있어 인문학 평생교육 학습체험은 생활세계의 답답함이나 무기력에서 빠져 나올 수 있는 일종의 ‘탈출구’가 되고 있었다. 일상생활의 역할과 관계에서 벗어나 도서관에서의 인문학 평생교육 학습체험을 통해서 답답한 감정을 해결하고 힐링을 하며, 사고를 확장하는 행복한 과정으로서 환기와 재충전의 윤희유 역할, 일상의 탈출구 역할, 또 다른 목표를 시도할 수 있는 긍정적이고 고무적인 삶의 전환점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었다.

*“우선 자신이 답답하니까 ~ 여기저기 기웃기웃 강의를 들으러 다니는 거죠. 강의를 듣는 것만으로도 하나의 작은 탈출구가 될 수 있어요.” “사실 이런 출구가 학교에는 없어요. 항상 성적 중심으로 얘기하고 평가하다 보니까로서 할 수 있는 창구가 없는데, 도서관 인문학강좌가 있다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한번 참여해서 이런 즐거움을 느낀 분들은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요. 도서관에 오게 되면 삶이 좀 더 운*

*활유가 되고, 뭘가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작은 끈의 역할, 상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밧줄의 역할이 되는 것 같아요.”*

인문학 평생교육 학습체험을 통해 뚜렷한 ‘활용 및 목표’를 갖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 중에는 작가가 되려는 목표를 가지고 문학을 공부하는 부류가 있었으며, 이들은 문학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인문학습의 필요성을 느꼈고, 독자를 감동시키기 위해서는 인문학습을 통해 고양된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시대의 흐름에 맞는 삶의 문제해결을 위한 삶의 충족, 사고의 지평을 넓혀 자신의 직무 분야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 시대정신을 반영한 창조적 연구 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 등으로 인문학 평생교육에 참여하고 있었다.

*“여러 가지를 배우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조금씩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 활용이 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요.” “문학을 하기 위해서는 문학 공부만해서는 절대 안 되고 철학이나 인문학을 모르면 문학을 하기 어려워요. 인문학적 지식이 배제된 상태에서 글을 쓰는 것과 수준이 다르죠. 인문학은 필수예요.” “경쟁보다도 시대의 이슈나 삶의 문제에 있어서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강의를 들어요. 내 삶을 충족시키려고요.” “인문학습이 새로운 이론을 정립하는데도 기초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콩나물시루에 물을 주면 지금 당장은 물이 다 빠져 나가는 것 같지만 콩나물이 쑥쑥 자라잖아요. 인문학습의 결과도 어느 순간 조금씩, 조금씩 맥락으로 이어져서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그런 창조물로 툭툭 터져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이처럼 연구 참여자들은 인문학 평생교육 학습체험을 통해 자신의 목표와 필요에 맞게 주관적 견해에서 벗어나 객관화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사고의 지평을 확장하고 통찰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었다. 또한, 삶의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인식전환과 치유로서의 윤희유 역할을 경험하고,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삶의 충족과 인식의 결과들이 자신의 꿈과 목표에 따라 적용하는 것을 시도하고 대비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나. 다시 ‘비유’으로

인문학 평생교육에의 자발적인 참여 현상은 범람하는 인문학 열풍 속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얼마나 자율적이며, 얼마나 예측적인지, 그 정도와 깊이를 가늠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상황에 처해있다는 데에 있다(최은혜, 2014). 본 연구를 통해서 탐색된 연구 참여자 또한, 자신에게 처해진 고통스러운 상황과 치열하게 갈등하는 생활세계의 문제들을 인문학

평생교육 학습체험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욕심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부정성을 털어내며, 정확해 나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비움’에 대한 본질의 세부적 유형으로는 ‘욕심’, ‘부정성’, ‘정확’로 나타났다. 먼저, ‘욕심’의 사례를 살펴보면 처음에는 문제의 본질이 자신이 아닌 외부의 탓으로 돌리는 부정성에 가로 막혀 있다가, 인문학 평생교육 학습체험을 통해 비로소 문제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욕심의 채움과 비움에 대한 관리능력이 생기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반성과 성찰의 과정을 경험하고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배려하고, 베푸는 것에 대한 가치판단과 실천이 가능해지면서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관심으로도 확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저한테 문제가 있던 거였어요. 어느 자리에서든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제가 욕심을 버리면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욕심을 못 버려서 그동안 방황을 했던 건데, 그 시간이 많이 아깝고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발밑을 파는 게 행복한 것 같아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엄마들이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거든요. 엄마들이 본인이 생각하는 행복이라는 것을 어느 순간에 많이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아이의 점수로 본인이 평가 받는다고 생각하고, 자녀교육에 열의를 올리고 외형적인 성공조건들로 자기를 더 안 좋은 상황에 처하게 만들어버리거든요. 물질적인 것으로 사람을 길러내는 세상인 것 같아요.” “내 현실이 여기에 있는데 다른 것을 부러워하고, 눈을 돌리다 보면 내 현실도 못 챙기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인문학적 삶이란 나를 감성적이게 만들고, 세상을 평화롭고 아름답게 보면서, 내 삶의 순간순간을 행복하게 엮어 가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해요.”*

다음으로, ‘부정성’의 사례를 살펴보면 삶의 경험에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마주하게 되는 힘겨움과 상처들이 있는데 좌절하고 실의에 빠져 주저앉거나, 분노하여 자신과 타인을 들볶게 되고, 또 애써 상흔의 아픔을 잊으려고 노력하는 등 아픔과 힘겨움을 움켜쥐고 사는 경우가 있다. 우리사회에서 ‘힐링’이 그토록 화두가 되었던 것도 이러한 개인들의 경험에 대한 공감에서 비롯된다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부정성’에 대한 체험 사례를 심층 인터뷰 한 결과, 연구 참여자들은 인문학 평생교육 학습체험을 통해 자신을 자각함으로써 부정성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똑바로 마주하며 제거해 나감으로서 정확해 나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자신의 양심 저 밑바닥에 있는 부정성을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는 용기와 자각이 생기면서 반성적 성찰이 일어나고, 자신과 마주함으로써 부정성을 걷어내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비로소 삶의 무게감이 덜어지는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공부를 하는 이유가 본인의 상처를 극복하기 위한 분들이 많아요. 상처가 흉터로 남는데 그게 되새김질이 돼요. 상처의 흔적이 남았는데도 그게 괜찮아졌다는 것은 그 상황에서는 너무 힘들다가 시간이 지나서 그 상처를 봐도 아무렇지도 않아지는 것. 그 상처를 봐도 이제는 덜 아픈 것, 그게 치료인 것 같아요.” “자신의 양심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신에게 진실 하려고 할 때는 부정성이 보이는데, 자신이 인정하기 싫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런 부정성이 모여서 삶이 불편한 거고, 부정성을 정확하게 보는 것이 삶을 조금 더 즐겁게 사는 첫 번째 길이라고 생각해요.”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타인의 삶의 문제도 담아내고, 관계하면서 짓누르는 묵직한 무게들을 비우고 털어내는 것이 필요했는데, 인문학 평생교육 학습체험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고, 반성과 성찰의 과정을 통해 정화작용을 해 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삶의 고통과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각을 경험하고, 사고의 전환을 통해 집착에서도 해방됨으로서, 비로소 너그러워질 수 있고, 배려도 가능하며, 더 나아가 베푸는 기쁨과 행복으로 이어져 생기 있는 삶의 과정을 체험하고 있었다.

“제가 털어낼 쓰레기통 같은 것이 필요했어요. 직업상 아픈 이야기를 계속 들어야 하니까 그걸 털어내야 하거든요. 마음속으로 정화도 해야 하지만, 제 스스로도 컨트롤 할 필요가 있어요.” “내적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 자각들이 일어나면서 삶이 변한 것 같아요. 자각이 일어나면 통증이 딱딱 풀리는 게 느껴져요. 삶이 바뀌니까 생각도 바뀌고 하면서 굳이 집착 같은 것도 안 하게 되었어요.” “도서관에서 인문학 강의를 들으면서 자기 자신이 행복해지니까 남들을 이해하고 배플 수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강의를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 지잖아요. 그 이상 뭐가 있겠어요. 너그러워지고, 기쁘고, 배려하고요.”

이처럼 연구 참여자들은 인문학 평생교육 학습체험을 통해 ‘욕심’, ‘부정성’, ‘정화’를 체험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자신의 내면세계에서 일어나는 욕구, 우울 등의 자기문제나 일상에서 빚어지는 관계문제, 갈등, 상처 등의 사태의 직면에 있어서 문제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인식을 하게 됨으로서 부정성을 제거하고, 욕심을 털어내며, 정화해 나가는, 비로써 ‘비움’을 체험으로 승화할 수 있는 삶의 변화를 겪고 있었다.

#### 다. ‘나눔’의 정신으로

인문학은 사회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나름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인문학이 삶과 실천의 통일을 지향하면서 실질적인 사회적 기여를 한다면, 인문학은 위기의 학문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블루오션이 될 수도 있다(김호연, 2010). 본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들의 인문학 평생교육 학습체험의 구조와 내적변화를 탐색함에 있어 눈에 띄는 현상이 ‘나눔’에 대한 인식으로서, 학습체험을 통해 ‘공감·교감’, ‘소통’, ‘참여·실천’ 형태의 주제 클러스터를 가지며 ‘나눔’의 본질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먼저, ‘공감·교감’을 체험하고 있었다. 학습체험의 과정에서 비슷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각자의 다른 경험을 나누고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공통의 슬픈 감정을 치유하고, 이러한 공감의 과정을 통해 문제해결은 자신의 몫이지만,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 고민들을 드러내고 나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문제해결이 가벼워지는 양상을 띄고 있었다.

*“학문을 한 길로만 가다보면,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만 찾다보면, 한계를 느낄 때가 있어요. 내가 잘 가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이 방법이 맞는지 이런 한계가 느껴질 때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강좌에서 유사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새롭게 깨어나는 듯한 느낌을 받거든요.” “인문학습을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공감하고 싶은 욕구도 큰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것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 ‘누군가도 똑같은 고민을 하는구나’ 라는 공감의 욕구예요. 나랑 비슷한 고민을 하는데 해결은 내가 해야 하지만 서로 공감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인문학은 본질적으로 ‘관점 취하기(perspective-taking), 즉 타인의 시선을 통해서 나를 보며, 세상을 바라보는 것으로서, 다양한 관점을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사유하는 것이 인문학적 작업이며, 또 인문학 공부의 목적이기도 하다(조성택, 2015). 또한, 인문학은 인간과 인간행동에 대한 탐구로서 인간에 대한 근원적 이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은 타인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소통을 통해 작용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 연구 참여자들은 인문학 평생교육 학습체험을 통해 생활세계에서의 소통의 부족을 극복하고자 인문학 평생교육에 참여하기도 하였으며, 대다수가 단순히 인문학 강좌 수강에만 그치지 않고, 독서토론 등 다양한 토론모임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다양한 관점을 통해 더 깊은 사고를 확장하는 것을 희망하고, 또 확장해 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배움과 인식의 체험구조를 SNS를 통해 공유하고 소통함으로써, 기쁨과 활력을 얻고 있었다.

*“인문학 강의를 듣는 것 자체만으로는 자기성찰의 확장이 잘 되지 않지만, 독서토론과 같이 타인과 교감을 하면 성장이 더 빠른 것 같아요.” “강의를 들으면 정리*

하고 인문학 지식을 활용해서 블로그나 카페에 올려요. 그러면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고, 감동하고 그러면 기분이 좋죠.” “강의를 들으면서 생각을 받아가고, 공감을 하게 되니까요. 자신의 생각과 세계관, 올바름에 대한 신념 이런 것들에 대한 공유가 필요해요.”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을 통해, 같은 내용이어도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받아들이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새로운 환경에 나를 노출시키고 싶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인문학에서 강조되는 인문정신은 자신과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임과 동시에 타인과 세계에 대한 이해와 나눔의 실천이 강조된다. 우리나라에 대중 인문학의 열풍과 함께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연구 참여자들은 인문학 평생교육 학습체험을 통해 나눔의 본질구조를 가진 내적변화를 겪으며 생활세계에서 ‘참여·실천’의 높은 지향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문학 학습 과정에서 삶의 가치관, 세계관 등을 공감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공유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다른 사람의 질문을 통해 다양한 관점을 접하고 수용하는 자세로서의 태도변화가 일어났다. 자신에 대한 자각, 세상에 대한 판단능력, 비판의식 등이 생기면서 이전에 보이지 않았고, 보지 못했던 세상에 대한 안목과 통찰의 자각으로서 사고와 관점의 변화를 일으키며 사회참여로 확장하고 있었다. 이러한 세상에 대한 관점의 변화와 세계관의 변화로서의 실천의식은 사회봉사로 확장되면서 민주시민으로서의 인문정신을 실천하는 동인으로 작용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인문학 강좌를 듣고 더 괴로워지는 측면도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잘못 된 것이었구나’ 하고 자각하는 것이 괴로워요. 그리고 알게 되면 행해야 하잖아요.” “예전엔 안보였던 비극들이 점점 선명하게 보이니까 고민이 깊어지기도 해요. 과거에 고통스러운 일을 바라보는 시각이 인문학을 통해서 변하고, 새로운 나로 거듭나게 되지만요.” “강좌를 들으면서 나의 생각이 바뀌는 거니까 사회를 보는 시각도 달라지고, 비판의식도 생기고 하는 그런 효과를 주는 것 같아요. 인문학이나 철학은 특히 더 사유를 바꾸어주기 때문에 사회참여로 까지 확장되죠.” “세상을 보는 시각에도 변화가 있어요. 생각이 바뀌니까 실천을 하게 되고, 그게 큰 물결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연구 참여자들은 인문학 평생교육 학습체험을 통해 ‘공감·교감’, ‘소통’, ‘참여·실천’을 체험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문제와 시대의 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교감하면서 위로와 기쁨을 느끼고, 이러한 소통의 과정을 통해 민주시민의식으로서의 참여와 실천으로 이어지는 나눔의 행복과 공동체적 삶으로서의 변화를 체험하고 있었다.

## V. 결론 및 제언

### 1. 연구요약

본 연구는 성인학습자의 인문학 평생교육 학습체험의 본질구조와 내용을 현상학적 체험연구 방법을 통해 학습당사자의 관점에서 조망하였다. 이는 한국의 ‘인문학 평생교육’이 국가주도의 ‘위로부터 내려온’ 성격을 지니고 있는 문제로 인하여 자칫 학습당사자의 구체적인 고민지점과 의미요소들을 섬세하게 담고,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두고 있다. 이에 개인의 체험(lived experience)을 통해 자신의 내적 의식에 떠올리는 ‘현상’을 중요한 삶의 대상으로 삼는 현상학 이념에 정초하여, 학습체험이 실제 삶 속의 성인 학습당사자들에게 어떠한 ‘현상’으로 비추어지고 있는지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에 참여관찰과 심층면담을 통해 수집되고 취합된 질적자료를 Colaizzi(1978)가 제시한 유형의 현상학적 질적연구를 통해 ‘주제분석’ 하여 학습당사자들의 체험의 ‘본질구조’를 탐색하였다. 분석 결과 ‘연음’, ‘비움’, ‘나눔’의 세 가지 유형의 본질구조가 탐색되었다. 구체적으로는 1) ‘연음’의 본질구조에서 ‘객관화(관점전환)’, ‘지평확장 및 통찰’, ‘탈출구’, ‘활용 및 목표’를 나타내었고, 2) ‘비움’의 본질구조에서는 ‘욕심’, ‘정화’, ‘부정성’으로 나타났으며, 3) ‘나눔’의 본질구조에서는 ‘공감 및 교감’, ‘소통’, ‘참여 및 실천’의 주제들을 나타내었다. 다시 말해 성인학습자들은 인문학 평생교육 학습체험을 통해, ‘연음’, ‘비움’, ‘나눔’의 본질구조를 나타내며 ‘삶의 변화’를 겪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2. 연구의 의의 및 후속연구 제언

본 연구가 주지한 접근 및 발견은 다음과 같은 학술적, 실천적 의의를 지닌다. (i) 첫째, 이러한 발견은 기존의 ‘인문학 평생교육’은 주로 공급자 중심의 시각에서 ‘마련된’ 프로그램의 성격을 가짐으로서 “결국 대학 강단의 인문학을 장소성의 측면에서 이전한 것뿐이 아니지 않은가?” 혹은 “수요자가 지니고 있는 다면적이고 구체적인 니즈(needs)와 맞닿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던 맥락에서, 현실의 성인 학습 당사자가 ‘비움’이나 ‘나눔’과 같이 보다 확장된 범위의 니즈를 아울러 가지고 있음을 보임으로서 기존 인문학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도서관 등의 평생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상호작용적 동태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보다 양방향적 소통의 틀에서 고민해 보아

야 한다는데 함의를 제공 한다. 가령,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일방향적 접근은 본 연구가 발견한 ‘본질’의 유형 중 강의를 통한 ‘언음’의 측면에 배타적인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인데, 실제 학습 당사자들은 학습맥락에 이루어지는 다양한 타인과의 소통 혹은 문제의 해결 등의 총체를 인문학 평생교육 학습으로 체험하고 있었다. 이는 학습자들의 보다 풍부한 범주와 범위의 니즈와 체험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상호작용적 동태성의 측면에서 인문학 평생교육을 재정의 할 필요가 있음을 강변하고 있다. (ii) 둘째, 기존의 평생교육에 관한 연구들이 평생학습 차원에서 자기계발이나 인적자원개발 측면에서 강조된 반면에, 본 연구는 인문학 평생교육의 개념을 중심으로 학습자의 내적변화를 심층적으로 탐색함으로써 인문학의 효과를 조망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성인학습자의 인문학 평생교육 학습체험을 통해 변화되는 내적변화를 현상학으로 탐구함으로써 의미 있게 다가오는 현상들을 이론화의 일반화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iii) 셋째, 실무적인 의의로는 평생교육 차원에서 전환기 성인학습자의 인문학 평생교육의 가치와 기능을 확인하여 인문학 교육의 중요성을 조망함으로써 국가 평생교육 차원에서의 인문학 교육기회를 확장하는데 있다. 그리고 성인학습자가 체험한 현장의 경험적 사례를 토대로 평생교육 차원에서 대중 인문학의 지평을 열어갈 수 있다는데 있다. (iv) 넷째, 평생교육학에서 밀접하게 활용되지 못해왔던 ‘현상학적 질적연구’를 학술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방법론적 지평과 시야를 확장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평생교육에 대한 앞의 보다 다각화 된 실효적인 것으로 전환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평생교육 차원에서의 대중 인문학의 확산을 위한 정책수립과 추진을 위한 보다 실효적인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다양한 인문학 평생교육 운영 사례에 대한 폭넓은 조망이 요청되므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기여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제한점이 없지는 않다. 본 연구는 성인 인문학습 체험의 본질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현상학적 방법론을 적용한 질적연구로 수행되었으나, 공공도서관 시민 인문학강좌로 제한하여 성인학습자의 인문학 평생교육 학습체험을 탐색한 것으로서 대중 인문학 전반에 일반화 하는 데는 제약이 따른다. 한편, 본 연구의 접근과 유사한 다양한 후속 연구들을 아울러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의 인문학 평생교육 학습체험의 심층면담 자료에 대한 의미단위들을 유형화하여 현상학적 의미의 본질구조를 통한 주제 분석의 결과를 해석한 것으로서, 성인학습자의 참여자의 젠더, 연령, 학력, 직업 등의 차이 변화에 따른 개인적인 맥락화 작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추가적인 개인 맥락화에 따른 삶의 변화에 대한 심층 분석은 차후의 후속연구 과제로 남겨둔다.

## 참고문헌

-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2014.8.6.). “인문정신, 문화융성의 길을 열다”. 보도자료.
- 강성용, 문재원, 이민용, 정명중, 정진아, 차철욱(2014). 인문학, 인문한국 그리고 ‘지금 여기’의 당사자성. **로컬리티 인문학**, 11, 5-41.
- 권향원(2016). 현상학과 사회과학연구: 정책연구에의 질적방법론적 적용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5(1), 355-394
- 김기봉(2014). 질주하는 과학기술시대 인문학이 필요한 이유. **인문콘텐츠**, 35, 9-26.
- 김미정, 이정희, 안영식(2013). 성인학습자의 인문교양교육 학습경험 유형화에 관한 질적 연구. **수산해양교육연구**, 25(2), 510-525.
- 김영석(2012). 성인학습자의 교육참여 및 학습동기 연구동향분석: 2000년부터 2011년까지 등재지 학술논문을 중심으로. **Andragogy Today**, 15(1), 31-62.
- 김영석(2014). 평생교육학 분야의 질적 연구 동향분석(2000년-2013년). **평생교육학연구**, 20(3), 135-166.
- 김향식, 최은수(2010). 고등교육과정에서 성인학습자가 갖는 학습경험의 본질에 관한 연구. **Andragogy Today**, 13(2), 51-76.
- 김호연(2010). 인문학의 복지적 실천을 위한 시론적 탐색.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6, 525-549.
- 나윤경(2013). 평생교육의 오래된 새 길: 전환학습적 인문학으로의 선회. **평생교육학연구**, 19(2), 215-237.
- 박성정(2001). 평생교육관점에서 본 인적자원개발체제. **평생교육학 연구**, 7(2), 177-199.
- 손승남(2015). 지역사회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대학의 역할과 과제. **교양교육연구**, 9(3), 71-96.
- 안세권(2014). 인문학의 길. **동서인문학**, 48, 7-24.
- 양은아(2009 a). 대중인문학교실 참여 학습자의 학습활동과 경험적 변화에 관한 연구. **평생교육학연구**, 15(4), 35-74.
- 양은아(2009 b). '실천인문학'과 결합된 인문교육의 성격변화와 대중인문교육의 새로운 맥락화. **평생교육학연구**, 15(3), 51-84.
- 양은아(2010 a). 삶과 학습의 선순환적 관계에서 나타나는 인문학습경험에 대한 생애사적 분석. **열린교육연구**, 18(2), 143-172.
- 양은아(2010 b). 왜 인문학에 끌리는가? : 문화·학습·실존의 끌개경험으로서 인문학습의 의미. **교육인류학연구**, 13(1), 31-68.
- 양은아(2011). 인문학적 사유방식과 교육적 질문방식. **평생교육학연구**, 17(1), 53-90.
- 유범상, 이현숙(2015). 인문학대중화에 대한 비판과 제언: 정부와 시민사회의 두 인문학을 중심

- 으로. **인문학논총**, 38, 165-194.
- 이남인(2014). **현상학과 질적연구: 응용 현상학의 지평**. 서울: 한길사.
- 이준석, 최운실(2014). ‘늦각이 성인학습자’들의 일상생활경험에 나타난 ‘학습하는 즐거움과 학습의 의미’: 현상학적 탐구. **교육종합연구**, 12(4), 281-304.
- 이희정(2011). 대학평생교육원 성인학습자의 평생교육참여가 학습성파에 미치는 영향. **교육연구**, 19(2), 67-108.
- 전주성, 오혁진(2003). 성인교육 프로그램 질에 대한 학습자의 평가준거 연구. **평생교육학연구**, 9(1), 29-52.
- 정민승(2008). ‘출구’로서의 평생교육 - 인문학의 위기에 대한 평생교육적 진단. **평생교육학연구**, 14(3), 1-19.
- 조성택(2016). 정부주도 인문학진흥의 가능성과 한계: 인문한국(Humanities Korea) 사업과 그 이후를 중심으로. **철학과 현실**, 101-118.
- 조영달. (2005). **제도공간의 질적연구 방법론**. 서울: 교육과학사.
- 천정환(2015). 인문학 열풍에 관한 성찰과 제언. **안과밖**, 38, 100-127.
- 최돈민, 정기수, 변종임, 이현석(2004). 성인학습자의 특성 요인이 평생학습 태도에 미치는 영향. **평생교육학연구**, 10(4), 231-263.
- 최은혜(2014). ‘대중 인문학’을 발명해야 한다: 2000년대 이후 인문학 열풍에 대한 단상. **문화과학**, 122-140.
- 최지수(2014). 평생학습중심대학 학습자의 참여동기와 학습지속의 관계에서 교육서비스질의 조절효과. **평생교육학연구**, 20(4), 1-30.
- 함돈균(2015). 공공적 삶과 시민 인문학, 인문정신. **문학과사회**, 28(2), 303-321.
- 한승희, 양은아(2007). 평생교육 맥락에서의 인문학습의 새 지평: 인문학 위기론의 재해석. **평생교육학연구**, 13(4), 27-54.
- Aspin, D. N. & Chapman, J. D.(2007) *"Lifelong Learning Concepts and Conceptions" in: David N. Aspin, ed.: Philosophical Perspectives on Lifelong Learning*, Springer.
- Braun, V., & Clarke, V.(2006). Using Thematic Analysis in Psychology. *Qualitative Research in Psychology*, 3(2), 77-101.
- Candy, P. C.(1991). *Self-Direction for Lifelong Learning. A Comprehensive Guide to Theory and Practice*. Jossey-Bass, 350 Sansome Street, San Francisco, CA 94104-1310.
- Colaizzi, P. F.(1978).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logist Views It*. In R. S. Valle & M. King (Eds.), *Existential-Phenomenological Alternatives for Psycholo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Cross, K. P.(1981). *Adults as Learners. Increasing Participation and Facilitating Learning*.

ERIC

- Husserl, E.(1913[1963]). *Ideas: A General Introduction to Pure Phenomenology (i.e. Ideas I)* (Trans. Gibson, W. R.). New York: Collier Books (Originally. Ideas Pertaining to a Pure Phenomenology and to a Phenomenological Philosophy).
- Jarvis, P.(2007). 'Universities as Institutions of Lifelong Learning: Epistemological Dilemmas', *Andragogy Today: International Journal of Adult*, 4(3), 1-24.
- Miles, M. B., & Huberman, A. M.(1984). *Qualitative Data Analysis: A Sourcebook of New Methods*: Sage Publications.
- Moustakas, C.(1994).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s*.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s.
- Polanyi, K.(1957). *The Great Transformation*. Boston: Beacon Press.
- Seidman, I.(2006). *Interviewing as Qualitative Research: A Guide for Researchers in Education and the Social Sciences (3rd ed.)*. New York, NY: Teachers College Press.

· 논문 접수 2016. 4. 30 / 수정본 접수 6. 23 / 게재 승인 6. 28

- 권향원: 성균관대학교에서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서 정책학 석사를 취득하였으며,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에서 공공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현재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에 겸임교수 및 선임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음. 주요 관심 분야는 과학철학, 질적-양적 연구 설계론, 조직이론 등임.
- 김선이: 성균관대학교에서 교육학 석사를 취득하고, 현재 같은 대학에서 교육학과 박사과정(교육행정전공)에 재학 중임. 아울러, 현재 서울시교육청 동대문도서관에 재직하고 있음. 주요 관심분야는 교육행정조직, 평생교육, 교육사회 등임.

*Abstract*

**A Phenomenological Study on Lived-Through Experience  
of Adults Life-long Learners on Humanity**

Hyangwon Kwon(Sungkyunkwan University)

Sun Yi Kim(Sungkyunkwan University)

This study seeks to understand what are experienced by adults life-long learners on humanity study and how the experience resulted in their inner change using phenomenological qualitative strategy. The rationale for this approach is based on the fact that in South Korea, the systems of life-long education on humanity are characterized by their hierarchial and top-down orientation. This situation thereby might be linked to the problems of insensitivity to the learners de facto needs and expectations, which deserve more scholarly attention. Bearing this in mind, the researchers conducted an ethnographic field study for 11 months as well as in-depth person-to-person interviews of 23 subjects, with a particular focus on the 'essence structure' and 'inner change,' which were taking place through the learners' lived-through experience on life-long learning of humanity subjects. Adopting Colaizzi's (1978) analytic guideline, the study found that the lived-through experience consists of three essences such as (1) gaining, (2) draining, (3) sharing. In addition, more rich descriptions on these essences were represented.

\* Key words: Adult Learners, Humanity Learning, Life-long Learning, Phenomenology, Qualitative Study